

지구는 우리 인간들만의 것이 아니다. 후세의 모든 생명체들로부터 우리가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자원을 아끼고 물건을 공유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구가 하루빨리 재생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마음속의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는 길이 바로 지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끝에서 배워온 한가지다.



## 아마존과 남극의 생명들이 전하는 이야기

김진만 | MBC 교양제작국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방송대상 대상,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뉴욕필름페스티벌 은상  
tel. 02-789-1589 | kijjima@mbc.co.kr



## 지난 3년간 지구 다섯 바퀴를 돌며 아마존과 남극을 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에족과 황제펭귄을 만났다.

브라질과 수리남의 경계, 약 5,000km<sup>2</sup>의 광대한 땅에서 250여 명의 조에족이 살아가고 있다. 턱에 뽕뚜루를 낀 채 문명을 거부하고 원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에족의 삶은 지켜보는 내내 감동이었다. 자연에 순응하며 필요한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조금씩 얻어 쓰는 그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조에족의 삶에서 '욕심'이라는 걸 느낄 수 없었다.

모든 생명이 떠나버린 남극대륙의 겨울. 오직 한 생명체만이 이곳을 찾는다. 황제펭귄은 허들링을 통해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배려하며 남극의 혹한을 견딘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발등 위에서 새끼를 부화시킨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100km 떨어진 바다를 오가며 목숨 걸고 서식지의 새끼를 키운다. 황제펭귄의 숭고한 삶은 때론 인간들의 그것보다 더 감동적이었다.

세상의 끝에서 늘 감동적인 경험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코앞에서 불타고 있는 아마존의 밀림과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린 생명들의 울음소리도 들어야 했고 기후변화로 1,500마리의 아델리 펭귄 새끼들이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굶어죽은 서식지의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다. 또 남극의 섬들에는 인간들이 데려온 북극순록과 쥐들이 번성하고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욕심'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인간의 탄소활동이 기후변화 요인의 100%는 아닐지라도 산업화 과정 이후 지구의 온도상승은 인간의 탄소활동과 깊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보다 편하고 행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가 발생한다. 결국 지구는 더워지고 각종 이상기온으로 식량생산은 줄어든다. 최근 미국 옥수수시대와 러시아 밀지대에서 발생한 이상기온은 옥수수와 밀가격을 대폭 상승시키기도 했다. 식량을 늘리기 위해 숲을 없애고 농지와 목초지를 개간하지만 이는 사막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하루가 다르게 녹아가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더 이상 태양열을 반사하지 못한 채 해수면을 상승시키며 해안가의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지구의 재생능력은 인간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자동차를 탄다. 남들과 비교하며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구입하기도 한다. 더 큰 차, 더 큰 집, 더 빠른 전자기기가 과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을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공유하는 조에족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남극대륙에서 허들링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황제펭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욕심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많은 물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얼마 전 신문기사를 통해 슬픈 뉴스 두 가지를 접해야 했다. 북극의 얼음이 과거의 절반으로 줄어 이제 400만 km<sup>2</sup>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마존의 야노마미 부족의 한 마을이 금광 채굴업자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불타고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지구의 눈물'은 <남극의 눈물>을 마지막으로 북극, 아마존, 아프리카의 긴 여정이 끝이 났지만 여전히 지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한 해 40여 마리의 바다사자를 먹으며 살아가는 북극곰은 이제 절망에 빠졌다. 오존층파괴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다양성을 빼앗고 있다. 오존에 강한 플랑크톤은 크릴새우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먹이사슬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는 탓에 바다사자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북극곰이 생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북극의 얼음도 사라지고 있다. 최근 맨하튼 4배 크기의 페테르만 빙하도 흔적없이 녹아버렸다. 배고픈 북극곰들이 살기위해 결국 인간의 땅을 찾아오지만 인간과의 싸움에서 북극곰이 이길 확률은 제로다.

아마존에는 목재와 석유, 금, 그리고 수산자원이 가득하다. 인간의 욕심은 결국 아마존이 가진 것을 탐낸다. 금채굴업자들은 금을 캐기 위해 그곳의 주인이었던 죄없는 야노마미 부족 마을을 불태웠다. 3년 전 촬영 때 방문했던 아쿤슈족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거대한 농장과 목장을 만들기 위해선 아마존 밀림을 불태워야 한다. 아마존 중부의 강성했던 아쿤슈족은 목장주들의 손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다. 개발을 위해서는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아쿤슈족은 4명이 남았다. 임신이 가능했던 아쿤슈 여성이 최근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쿤슈족은 멸족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완전히 사라지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아마존 밀림은 불에 타 사라질 것이다.

<아마존의 눈물>을 취재하면서 한 야노마미 추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들의 탐욕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우리의 죽음은 이 세상의 멸망이고 이는 곧  
당신들이 짊어져야 한다.”

피를 토하는 추장의 절규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아마존의 밀림과 남북극의 얼음들.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탄소를 정확하고 태양열을 반사해 온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지구가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들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지구는 우리 인간들만의 것이 아니다. 후세의 모든 생명체들로부터 우리가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자원을 아끼고 물건을 공유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구가 하루빨리 재생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마음속의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는 길이 바로 지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끝에서 배워온 한가지다.

